

Style

조선일보

WINTER 2018



**ARMANI
RED CUSHION**

하이패션을 입은
조르조 아르마니 레드 쿠션
리미티드 쿠티르 에디션

GIORGIO ARMANI
beauty



GIORGIO ARM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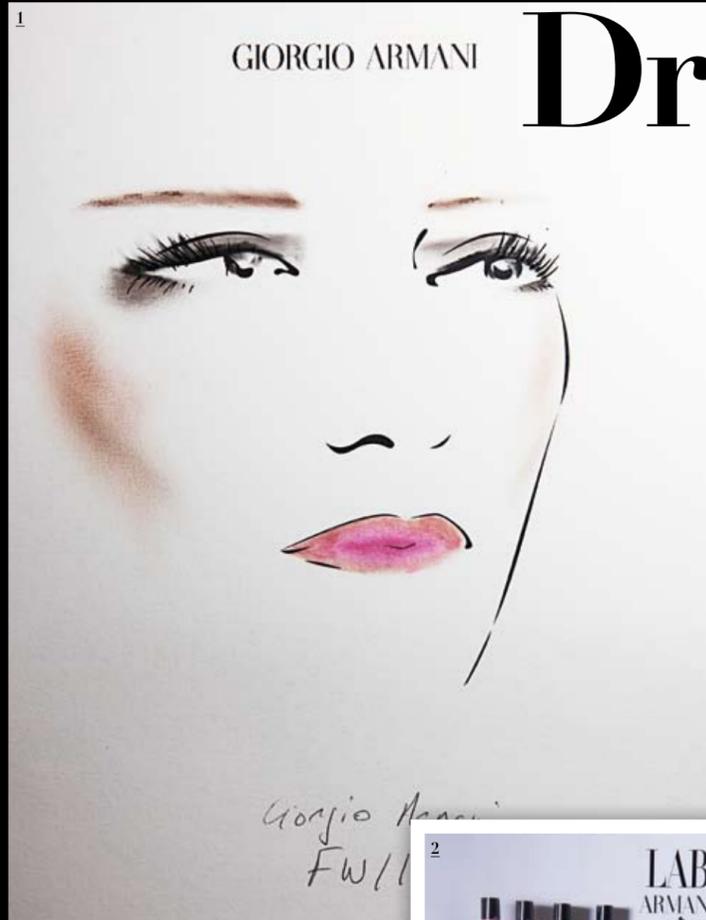


My Armani to go

아르마니 레드 쿠션, 하이 패션을 입다.

NEW 아르마니 투고 쿠션 SPF23 PA+++

Couture limited edition



Dress Code for Face

“우아함이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라고 했던 완벽한 미의 추구자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을 넘어 리빙, 뷰티를 아우르는 그의 커다란 제국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거대한 명품 제국, 조르지오 아르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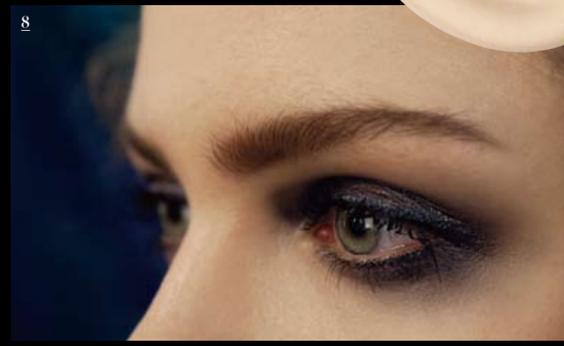
아르마니 스타일. 이제는 완전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단어! 누구든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철학과 헤리티지로 무장한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스타일은 절제된 우아함과 뉴트럴 컬러, 패브릭 특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실루엣,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로 정의된다.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련미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 철학을 오랜 세월 유지한 결과다. 그래서 그의 수트는 가법기로 유명하다. 무접착 심지를 사용해 일반적인 수트에 비해 무게가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상에 속박되는 것을 경멸한다는 그의 스타일은 간결한 재단으로 귀결된다. 거기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더하면 우아한 아르마니 특유의 패션이 완성되는 것. 그는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가구, 직물, 패션,

뷰티, 액세서리가 하나의 이미지 아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또한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일관된 디자인 미학에 기반한다. 타 브랜드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거대한 아르마니 제국이 오로지 아르마니 개인의 손으로 구축되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오프 쿠티르 쇼의 소품 하나, 꽃 장식 하나, 모델의 발걸음 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물론, 아르마니 호텔의 인텔리 어부터 직원 유니폼까지 전부 세심하게 신경 쓸 정도로 모든 프로젝트를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한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것이 필수다. 비범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작은 디테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것 하나 하루를 지나치지 않는 그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지휘하기에 명품 하우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하나의 커다란 제국 안에서 극도로 고급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탈리안 럭셔리 뷰티를 대표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실크 베일을 씌운 듯 부드럽게, 벨벳같이 보송보송하게 등 직물에 비유해 피부를 표현한 것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피부를 패브릭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던 2006년, 다양한 직물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아르마니가 자신

이 만든 파운데이션이 실크, 코튼, 벨벳 등 다양한 텍스처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프레스 키트에 다양한 패브릭을 붙인 것이 그 시초다. 1982년 여성을 위한 향수를 선보이고, 2000년에 메이크업 라인을 론칭했으며 현재는 스킨케어 라인까지 걸비해 토털 뷰티 라인을 갖춘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근간은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테일러링과 더불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소재인데, 뷰티에서도 소재, 즉 메이크업의 바탕이 되는 피부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2012년 아르마니 프라이베 컬렉션에 사용한 오간자 소재를 제시하며 이처럼 극도로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완성해낼 것을 지시해 비에스트로 퓨전 메이크업 SPF 15를 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인 일화다. 쿠티르 의상은 물론 레드 투웨어를 제작할 때 센티미터 단위가 아닌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패션 철학 또한 뷰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고도의 원료 엄선 과정을 거쳐 제품의 입자를 극히 미세하게 정제하는 특허 기술 마이크로필름™을 개발해, 아무리 덧발라도



1 렌웨이 쇼 메이크업을 위한 페이스 채트, 2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이 탄생하는 공간인 아르마니 런웨이 랩, 3 2018 S/S 백스테이지 현장, 4 조르지오 아르마니 2018 S/S 컬렉션 모습, 5 지속력과 커버력을 고루 갖춘 파워 패브릭 파운데이션, 6 셀러브리티부터 뷰티 전문가까지 인정받아 부르는 래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7 컬렉션 의상에 차용된 더블 실크 패브릭, 8 컬렉션 백스테이지 현장에서 표현한 아이 메이크업, 9 아르마니 우아함을 상징하는 레드 립, 10 리워드 티투 립 밀 마스트로 400, 11 강력한 고광택 매트 파니시의 립 마에스트로 400, 12 여성 향수 씨 오드 퍼플, 13 프라이빗 향수 라인 프라이베 피보알 수주, 14 수분크림, 프라이머, 마스크의 기능을 해-어 담은 프라미 모닝 글로우 밤, 15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을 체크하고 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밀리거나 두꺼워지지 않는 아르마니 뷰티만의 완벽한 테크놀로지를 구사할 수 있게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립스틱 컬러, 제품 콘셉트, 패키징, 향, 광고, 행사장 콘셉트, 스킨케어 제품의 원료, 매장 위치에 이르기까지, 생존하는 명품 하우스의 크리에이터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코즈메틱이라는 사실 외에도 아르마니 뷰티의 특별한 점은 또 있다. 바로 아르마니 런웨이 랩이다. 이는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런웨이를 위해 즉석에서 구원하고 창조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역할을 한다. 쇼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아르마니 뷰티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는 타 브랜드에 비해 6개월 이상 빠른 출시 프로세스다. 이렇듯 아르마니의 남다른 행보와 철학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수많은 뷰티 인플루언서가 꼽은 인생 코즈메틱

남성복 소재로 여성 수트를 재단하고, 남성 재킷의 딱딱한 어깨 패드를 없애 재킷의 해체라는 패션 혁명을 일으킨 이래 테일러링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자신이 펼쳐 보인 노하우와 철학을 코즈메틱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 아르마니 뷰티의 아이템은 전 세계 여성을 사로잡는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특히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은 각종 어워드에서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인기 높다. 래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은 셀러브리티,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인플루언서 등 떠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여성들의 '인생템', '인생파데로 불리는 굳건한 대표 아이템. 이와 함께 사랑받고 있는 파워 패브릭 파운데이션은 다크닝이나 흐트러짐 없이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6가지 컬러로 선보여 다양한 피부 톤을 만족시킨다. 파운데이션과 함께 아르마니 뷰티의 대표 아이콘은 립 제품이다. 특히 우아한 열정과 모던함을 상징하는 레드-는 아르마니의 상징적인 컬러로, '아르마니 뷰티의 이미지가 레드 립으로 대변될 정도다. 입술에 바르는 즉시 부드럽게 녹아들어 타투를 새긴 듯 오랫동안 선명한 컬러를 유지해주는 '밀 마스트로' 대표적. 더불어 기존 립의 지속력을 보강한 선명한 컬러, 촉촉하지만 매트한 마무리감, 깃털처럼 가벼운 질감까지 갖춘 '립 마에스트로' 역시 은근히 매력을 어필하는 아르마니 여성들의 우아한 메이크업 룩을 완성하는 주인공이다. 국내 출시 5일 만에 완판 기록을 달성하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아르마니 투고 쿠션 또한 주목해야 한다. 아르마니의 하이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티르 리미티드 에디션도 연말과 새해에 맞춰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2018년, 새로운 쿠션 아이টে일로 다시금 피부 혁명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아르마니 뷰티, 마에스트로가 존재하는 한, 시간을 초월하는 우아함은 여성의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Armani Couture

패브릭의 가장,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쿠튀르 컬렉션 디자인을 그대로 담은 NEW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 오리지널 레드 쿠션의 명성을 고스란히 담아 축축하면서도 부드러운 벨벳 피부를 완성했다. 배두나의 결점 없이 매끄러운 피부는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볍게 표현했고, 티투처럼 산뜻하고 오래 지속되는 립 마그넷 400을 입술 라인까지 채워 발라 세련된 레드 립을 완성했다.

Red Couture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는 우아하면서 당당한 자신감을 갖춘 여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예요. 강렬하면서도 우아하죠. 그 점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 배우 배두나

우아하고 에지 있게 정돈한 벨벳 피부와 레드 립, 시선을 압도하는 매혹적인 눈빛과 당당한 애틀튜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적인 톱 배우 배두나와 독보적인 존재감의 아이코닉한 레드 립을 입은 아르마니 쿠션과의 완벽한 조우. *photographed by mok jung wook*



Couture Cushion

패션 액세서리를 연상시키는 NEW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은 피부에 가볍지만 완벽하게 밀착되어 매끈한 벨벳 피부를 하루 종일 지속시키는 것이 특징. 럭셔리하고 우아한 피부 표현을 위해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 2호를 얼굴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 바르고, 살짝 빛 '아르마니 차크 패브릭'을 광대부터 사선으로 넓게 세이딩해 생기를 더했다. 여기에 톤 다운된 누드 핑크 컬러의 아르마니 립 마이스트로 501으로 립을 마무리해 여성스럽고 차분한 무드를 연출했다.

주요 브랜드로 MSGM 양장

Red Cushion

피운데이션의 광가 조르조아 아르마니의 첫 번째 쿠션이자 레드 쿠션이라는 애칭으로 생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아르마니 투고 쿠션, 개개인의 피부에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유면서도 고급스러운 피부 톤과 윤광 효과를 선사한다. 결점 없이 매끄러운 피부와 럭셔리한 광채가 부각되도록 아르마니 투고 쿠션으로만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했으며, 입술에는 아르마니 엑스타시 시인 100을 빌라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핑크빛을 더했다.



주요 브랜드로 볼리베 양장



Crema Nuda

고귀한 부황초 레비넨탈리스의 파워와 신기유명 투명 피그먼트의 완벽한 조화로 완성된 하이 액티브 투명 파운데이션 크림 '크레마 누다'. 보습과 영양 공급은 물론 화상하고 투명한 톤 업 효과를 선사한다. 배드나미 내추럴한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크레마 누다'를 여러 번 덧발라 자연스러운 피부 광채를 극대화했으며, 본연의 인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트르미니 엑스타시 사인 100으로 고급스럽고 생기 있어 보이는 동안 페이스를 완성했다.



Shine Red

아르마니 뷰티의 아이코닉한 400호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레드 립 메이크업. 수분을 가득 머금은 듯 촉촉하고 투명함이 감도는 레드 컬러의 립은 아르마니 엑스티시 사인 400으로 표현한 것. 엑스티시 사인은 립밤과 립스틱, 립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 컬러 립트 스틱으로, 입술에 부드러운 보습 효과와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컬러를 더했다.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이준성
스타일리스트 박세준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Armani Red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배우 배두나는 아르마니의 투고 쿠션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가 사랑하는 레드 쿠션”이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진심으로 이 레드 쿠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멘트다. 그녀가 이토록 좋아하는 아르마니 뷰티가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두나의 얼굴이 촬영 내내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났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아르마니 투고 쿠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나 지인에게도 꼭 써보라고 추천하곤 했죠.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딜 가든 아르마니의 레드 쿠션을 휴대해요. 아르마니 투고 쿠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쿠션 팩트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쿠션 제품 특유의 들뜨고 밀리는 현상이 싫어서요. 하지만 아르마니 투고는 정말 달미요. 피부에 착 달라붙고 신기할 정도로 피부가 매끄러워져서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갇힌 느낌도 없어요. 이번에 더 매력적인 쿠튀르 패키지로 선보인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배우 배두나

피운데이션 령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첫 번째 쿠션 마에스트로 아르마니 투고 쿠션. 그 명성은 앞서 소개한 배우 배두나의 멘트 외에도 각종 SNS에 올라온 뷰티 마니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고가의 제품임에도 품질 사타가 별 어지고,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쿠션 팩트의 판도를 뒤흔들었으니, 역시 피운데이션의 령가가 만들면 다르다. 뛰어난 카버력으로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는 롱 래스팅 효과와 함께 피부에 닿았을 때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과 동시에 보습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벨벳 파니시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레드 쿠션의 독보적인 특징이다. 실제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한 배두나의 피부는 가까이에서 봐도 결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탱탱한 탄력감이 느껴졌으니, 그 효과를 두 눈으로 확인한 셀 이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 오리지널 투고 쿠션에 쿠튀르 패키지를 더한 아주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된다는 것. 하 이페션에서 영감을 얻은 반짝이는 실버 패턴의 ‘아르마니 투고 쿠튀르 쿠션 리미티드 에디션’은 소장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패키지와 함께 오리지널 레드 쿠션의 명성을 고스란히 담아 럭셔리 쿠션 팩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베이스 메이크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차원의 투명 피운데이션 크림 ‘크레마 누다’ 역시 배두나의 피부를 아름답게 빛낸 일등 공신이다. 프리미엄 스킨케어 크레마 네라 크림의 고귀한 성분인 레비센텔리스의 영양을 듬뿍 담아 버리는 즉시 화사하고 윤기 가득한 투명 피부를 완성한다. 이처럼 투고 쿠션, 크레마 누다, 아르마니의 아이코닉한 립 제품이 허모니를 이룬 이번 쿠튀르 메이크업은 배우 배두나의 내추럴한 매력과 당당하고 우아한 카리스마를 극대화한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1 티투처럼 선명한 컬러가 오래 지속되는 립 마크릿 400, 2,3 아르마니의 첫 번째 쿠션 마에스트로, 투고 쿠션, 4 립밤, 립스틱, 립트의 장점을 모아 촉촉하면서 선명한 발색력이 특징인 엑스티시 사인 400, 5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피부의 비밀을 담은 하이 럭셔리 투명 피운데이션 크림, ‘크레마 누다’.

Couture Cushion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는 컬렉션 의상만큼이나 고급스럽고 완벽한 뷰티 룩을 완성한다. 최고급 원단을 피부에 직접 바른 듯한 피니시를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명가의 쿠션 파운데이션 아르마니 투고 쿠션과 쿠튀르 의상으로 치장한 아르마니 투고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아르마니의 미학에 빠져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파운데이션 명가의 첫 번째 쿠션

확고한 브랜드 철학과 헤리티지, 뚜렷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루며 성장한 명품 패션 하우스의 마지막 욕망은 언제나 뷰티를 향했다. 컬렉션에 등장한 컬러들이 아이세도 팔레트가 되고 옷 소재가 파운데이션의 텍스처가 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성성이 향수로 구현되기도 한다. "메이 크업은 분명 패션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우아함, 아름다움,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이지요. 메이크업이란 패션과 마찬가지로 여성성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한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멘트를 빌리자면 좋겠다. 이제 패션과 뷰티의 뚜렷한 경계가 사라진 레플리카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예외는 아니다. 페브리 고유의 특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디자인을 강조하는 그는 아르마니의 독특한 질감과 컬러를 뷰티에 담고자 했다. 그 결과 투명한 텍스처의 메이크업을 가능하게 하는 아르마니만의 특허 기술 마이크로-필름을 창조하기도 했고, 오르지처럼 가벼운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자고 제안해 미세스트루 푸전 파운데이션을 완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질감에 대한 그의 고집과 철학이 패션뿐 아니라 뷰티에서도 통하며, 파운데이션의 명가로 독특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브랜드 최초의 쿠션 파운데이션 '아르마니 투고 쿠션'을 론칭, 원판 신화와 품질 대란을 통해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다. 이전에는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이 인기였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쿠튀르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한정판 아이덴티 인클이 이번에도 품질 사재를 빛낼 것으로 예상된다. 패치지는 쿠튀르 컬렉션 드레스의 세브르 패턴을 그대로 풀고 있고, 쿠션이 연출해주는 피부 표현은 아르마니가 추구하는 과도하지 않은 우아함으로 이끈다. 그가 만든 쿠튀르 의상만큼이나 유니크하고 최고급 벨벳 원단을 피부에 덮은 듯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하니, 하루 종일 스타일과 피부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최고의 페이스 액세서리가 되지 않을까?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아르마니 투고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을 소장할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서두르는 지어개만 하러들 뿐.

단 한 번의 터치로 완성하는 쿠튀르 메이크업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긴 시간 동안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자외선 차단제까지 파운데이션을 바른 뒤 파우더나 투웨이 케이크 등을 꼭꼭 누르는 단계를 모두 거쳤다. 하지만 쿠션 파운데이션이

등장하면서 메이크업 단계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쿠션 하나만으로 메이크업 베이스와 선크림, 파운데이션을 바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이나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두드려 바르는 특성상 피부 윤기 연출 효과도 탁월한 쿠션 팩트는 메이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브랜드 최초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보이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바쁜 현대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단 한 번의 터치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피부에 퍼바르는 즉시 부드러운 벨벳 피니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의 명성을 잇는 강력한 주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커버력이 뛰어나 무결점 피부를 연출하면 서도 오랫동안 촉촉하게 빛나는 글로어를 완성하는 롱 래스팅 기능 또한 눈에 띄는 장점 중 하나. 스펀지에 보다 촉촉한 스펀지를 이중으로 덧대어 얇은 스펀지형 제품에 비해 쉽게 쉽게 흡수할 수 있다. 퍼포에 스코만 물이나 피부를 보다 알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다 쉽게 오염되지 않는 네오코라라는 소재를 사용해 위생 걱정도 적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동그란 스펀지가 아닌 윗부분이 뾰족한 애플리케이션과 콧볼, 눈 밑 등에 세심하게 연출할 수 있다. '아르마니 뷰티'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컬러, 레드도 마무리한 패키지는 완벽하게 일체되어 내용물이 쉽게 마르지 않게 도와준다. 또 핑크 베이스부터 샌드 베이스까지 네 가지 컬러는 개개인의 피부 톤에 최적화된 컬러로 오랜 시간 공들여 베이스 메이크업한 것처럼 완성해준다. 한 발의 쿠튀르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처럼 수많은 베이스 레이어와 블렌딩 과정을 통해 최상의 텍스처와 마무리감을 찾아낸 아르마니, 완벽한 피부 표현과 더불어 아이코닉한 레드 케이스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디션을 완성해보길.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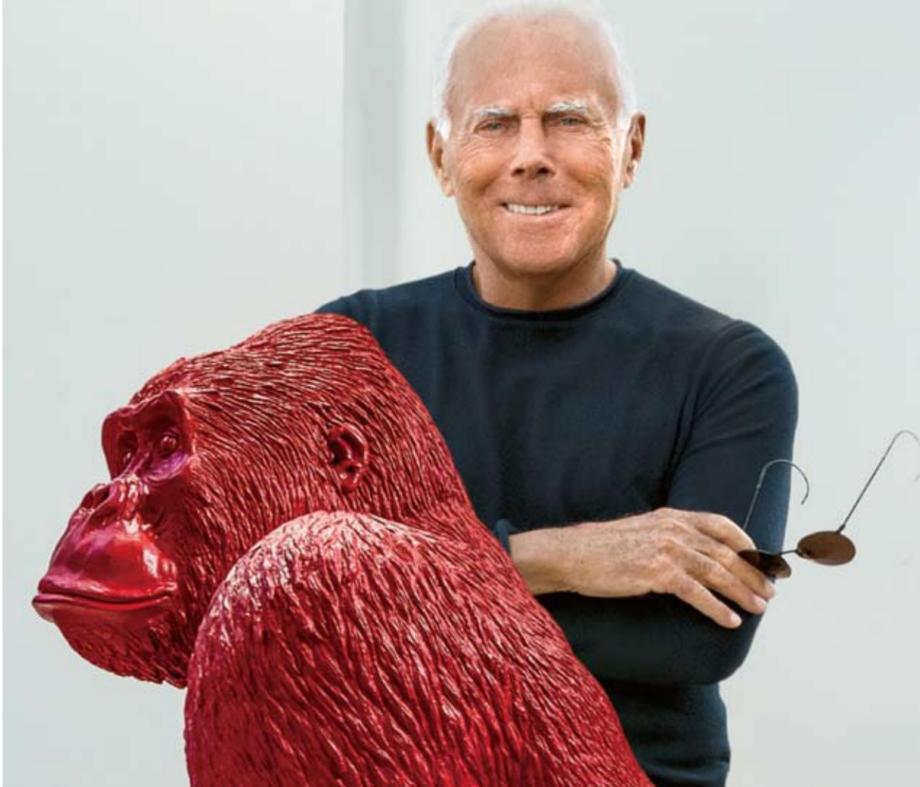
- 1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고 쿠션 15g 8만9천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고 쿠션 쿠튀르 리미티드 에디션 15g 8만9천원. 2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2013 S/S 조르지오 아르마니 쿠튀르 컬렉션.
- 3 컬렉션 의상의 세브르 패턴을 모티브로 쿠튀르 쿠션의 패턴.

SPECIAL OFFER

<스타일 조선일보>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가 함께하는 스페셜 오퍼

본 쿠폰을 소지하고 '아르마니 박스(ARMANI BOX)'를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화제의 럭셔리 쿠션인 '아르마니 투고 쿠션(3g)'을 경험해볼 수 있는 샘플을 드립니다.

◆ 기간 2013년 2월 1일(목)부터 소진시 까지 ◆ **중점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피아메 스트리트 아르마니 박스(080-022-3332) ※ 인 1회 사용, 제품 소진 시 추가-증정 증정 불가합니다.



Armani Box

그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하고 새로운 개념의 뷰티 공간이 2013년 1월 말, 한국에 상륙한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레드 컬러를 입고 새롭게 선보이는 유니크한 디지털 콘셉트의 소셜 팝업 스튜디오, 아르마니 박스(ARMANI BOX)가 바로 그것이다.

신개념 소셜 팝업 스튜디오, 아르마니 박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감성과 감각이 그대로 녹아든 특별한 뷰티 플레이그라운드, '아르마니 박스'. 파리, 런던, 홍콩,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거쳐 일곱 번째로 서울에 모습을 드러낸 이 특별하고도 유니크한 디지털 콘셉트의 소셜 팝업 스튜디오는 SNS에서 #armanibox 라는 해시태그만으로도 수만 건의 리뷰가 검색될 정도로 이미 전 세계 뷰티 마니아를 사로잡은 핫 스폿이다. 이는 일반 코즈메틱 매장이 아닌 매 시즌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재미있게 변신하는 팝업 스토어 형태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뷰티,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 문화 스튜디오다. 다양한 제품을 마음껏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최신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룩북, 유쾌한 포토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아르마니 박스

에 한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특히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오라의 빨간색 고티라, 유리(UR)는 아르마니 매장에 있는 Mr. 아르마니의 페르소나인 블랙 고티라를 재해석한 조각상이다. 오직 아르마니 박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그니처 아이코닉인 유리와 함께 찍는 인증샷도 필수다. 더불어 아르마니 박스에서만 선보이는 특별 한정판 제품과 함께 선보이는 에코 백도 절대 놓치지 말 것. 아르마니 박스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피아메 스트리트에서 1월 말부터 약 2개월간 만나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밀레니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소셜 스튜디오인 '아르마니 라이트 박스(ARMANI LIGHT BOX)'가 연이어 전 세계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연다고 하니, 이 또한 기대해도 좋다.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GIORGIO ARMANI



MY ARMANI TO GO

파운데이션 명가의 마침내 완성된 쿠션 마에스트로

NEW 아르마니 투 고 쿠션 SPF23 PA+++

하이 커버 - 롱래스팅 - 쿨링 에센스 - 벨벳 피니쉬

#레드쿠션 #아르마니쿠션 #투고쿠션